



황금알을 낳는 닭 KFC와 하림

평범해 보이는 닭이라는 동물에게서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어낸 불굴의 도전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었다. 꿈과 열정으로 미묘하고 신비한 경지에 이른 KFC와 하림의 사례는 좋은 경영의 귀감이 될 것이다.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중략/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
어/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시 <광야(曠野) 중에서>

“그동안 어설픈 거리 떠돌던/서푼짜리의 나/이제 무일푼의 나로 돌
아와//감히//여기 몽골 테질레 풀밭 머리/차라리/차라리/차라리/닭
으로부터/아니 달걀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고은 시 <울란바타르의 마음> 중에서)

닭은 새벽과 천지의 개벽을 알리는 성스러운 동물이면서, 동시에 삼계탕, 찹닭, 닭튀김, 닭갈비, 불닭, 통닭, 닭볶음탕, 닭죽 등으로 친숙한 보양음식이기도 하다.

12간지 동물중 10번째로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닭은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설화에서 보듯 우리 역사 곳곳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인들은 닭을 일러 하늘이 처음 열리는 천지의 개벽을 알리는 길조의 상징으로 묘사했고, 삶과 세상의 선후 시비를 가리키는 '닭과 달걀의 우화'를 들어 시의 소재로 삼곤 했다.

그런 닭을 비즈니스 수단으로 만든 사례는 세계기업사의 곳곳에 즐비하다. 벤처기업과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닭을 소재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한 것은 벤처기업이 첨단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일상의 아이디어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착안한 기업인들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KFC의 탄생과 성공경영 비법

‘닭’ 하면 연상되는 세계적인 기업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KFC)이다. KFC를 만든 설립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대령)는 닭 요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자신만의 비법으로 만든 감칠 맛 나는 닭요리를 선보이면서 이를 프랜차이즈화시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1890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커넬 샌더스는 닭 요리를 즐겼지만, 닭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40세 때 주유소에서 손님에게 자신이 만든 닭요리를 대접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자, 아예 치킨 전문점을 열었다. 그의 튀김 닭이 주지사의 눈에 들어 켄터키주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고, 그는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일종의 작위 같은 호칭인 ‘커넬’(colonel, 대령)로 불렸다. 65세 때 식당을 그만둔 샌더스는 여러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닭 요리비법을 홍보하고 이를 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2년 여에 걸쳐 1009번의 제안이 거절당한 뒤 마침내 1010번째에 그는 첫 고객을 맞는 데 성공했다. 68세 때 잡은 기회를 인생의 첫 희망이었다. 그는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난관과 고통을 돌파할 것을 설교했다.

샌더스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 즉 세계 첫 KFC 1호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세계적인 푸드기업인 KFC를 만들어나갔고, 이후 곡절 끝에 지금은 펍시에 통합되었다. 국내엔 20여년 전인 1984년 1호점이 종로에 문을 열었으며, 2005년 현재 전 세계에 1만 3,000여 개의 체인점이 있다.

일흔의 나이에 자신의 프랜차이즈를 열고 사업의 나래를 펼쳤던 샌더스는 “①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②나이는 숫자일 뿐 열정으로 승부를 걸어라 ③실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④남들과 같은 생각을 버리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⑤하기 싫은 일 대신에 작더라도 하고 싶은 일에 승부를 걸어라 ⑥처음 편했던 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처음 어려웠던 길은 갈수록 쉬워진다 ⑦꿈과 열정이 없는 청년은 나이 많은 노인과 다를 바 없다”는 7가지의 경영 교훈을 내놓았다.

끊임없는 도전정신이 세상을 바꾼다.

미국에 KFC가 있다면 한국에는 닭고기 가공업체로 코스닥시장의 간판기업인 하림이 있다. 닭고기 전문메이커인 하림은 작년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농업 분야에서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림에

솔린 국가적 관심의 정도를 반영해준다. 커넬 샌더스처럼 닭과 함께 인생을 보낸 하림 김홍국 회장은 유년 시절부터 닭에 일생을 걸었다. 57년생으로 닭띠인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가에 들렀다가 노란 병아리 10마리를 얻어 키우면서 축산부농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어 대학진학도 포기한 채 이리농고 축산과에 진학해 양계 공부에 전념했다. 미성년자 신분이던 이리농림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걸고 사업을 시작했고, 30살이 된 1986년 하림식품을 설립해, 농장과 공장·유통을 통합하는 본격경영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1997년 코스닥에 등록하고 뒤이어 일일 생산능력 200톤 규모의 육가공 신축공장을 준공하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하다가 2003년 익산 도계공장의 화재로 연건평 3만여 m²의 내부와 시설이 전소되면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손실규모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1980년대 초 닭값 폭락,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화재를 세 번의 큰 시련과 무수한 작은 고비를 넘어선 하림은 축산과 유통분야에 10여 개 계열회사를 거느리며 그룹으로 성장했고 이들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을 넘는 탄탄한 대표적인 닭 가공 기업으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경영합리화 노력 및 하림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위기를 뛰어넘게 된다. 기업경영에는 자신의 일상을 승화시켜 꿈으로 만들어내는 불굴의 의지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정신이 필수적이다. 작은 고난으로 패퇴하는 정신력으로는 대업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범해 보이는 닭이라는 동물에게서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어낸 불굴의 도전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었다.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 ‘허실(虛實)’ 편에서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 군대는) 미묘하고도 미묘하다! 이런 군대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신비하고도 신비하다! 이런 군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능히 적의 생사를 맡아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교했다. 꿈과 열정으로 미묘하고 신비한 경지에 이른 KFC와 하림의 사례는 좋은 경영의 귀감이 될 것이다.

